

목 차

I. 해녀 조례 제정 기획

1. 기획의도
2. 현행 해녀관련 제도
 - 1) 기존 조례
 - 2) 현행계획
 - 3) 기타
3. 검토할 사항
4. 향후 추진계획(안)

II. 해녀관련 조사보고

1. 제주도 외 타 시도 관련 지원 법령.
 - 부산광역시 해녀 복지관련 지원
2. 제주해녀 국제 학술 심포지엄
3. 관련 상위법
 - 1) 수산업법
 - 2) 수산업협동조합법
 - 3) 수산자원관리법

4. 관련 논문 요약 조사.

- 1) 일본 아마의 잠수실태와 특성
- 2) 해녀 복지증진 및 관광자원화
- 3) 해녀 문화 (출가해녀)
- 4) 제주 해녀춤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특성 연구

III. 해녀조례 제정 조례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경제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제안
1. 줄어만 가는 해녀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젊은 해녀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안 마련
 2. 기존 해녀 지원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해녀 조례의 보완 필요

1. 해녀 조례 제정 기획

1. 기획의도

- 해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직업군으로서 세계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제주를 상징하는 관광아이템으로서 인정받고 있어 문화적 측면에서 보전·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잠수어업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70년대에만 하더라도 14,000명에 이르렀으나 점점 감소하여 2010년 현재 4,995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50세 이상이 97.5%에 육박하며 70세 이상이 43.3%에 이르는 점을 볼 때 해녀의 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붙임참조)
- 기존의 조례나 제도가 해녀를 보전·계승하기 위해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금번 해녀 조례(안)은 산업적 측면에서 고갈되어가는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더불어 해녀의 수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함

2. 현행 해녀관련 제도

1) 기존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출항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

- 제주의 고유한 제주해녀문화는 세계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날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해녀문화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주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전승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등 소중한 제주해녀문화를 문화·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자 하고자 발의한 조례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제주해녀관련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자원화,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그 밖에 해녀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를 두고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 해녀문화 전수생 선발, 연구기관 위탁, 그 밖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해녀문화교육은 마을단위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관련 전문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함.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에서 해녀문화 전승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과거 제주해녀가 출가(출향)물질을 했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및 해외 지역 등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해녀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해녀 문화를 홍보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출향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에 대해 조례를 통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
- 기존에는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들로 한정. 이에 출향 잠수어업인들에게도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제정
- 세계적인 문화적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그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
- 제주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출향 잠수어업인(해외지역 제외)들의 고향 제주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
- 출향 잠수어업인의 정의와 진료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출향 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및 실태조사

2) 현행계획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 필요
- 제주해녀 세계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계획의 성격 및 역할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대한 종합계획
- 계획의 기간 : 2011년 ~ 2015년(5개년)
- 예산투자 계획 : 총 7개분야 27개사업·61,516백만원

3. 비전 : 제주해녀, 바다 건너 세계로!

- 세계적으로 독특한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추진
- 제주해녀문화의 전승기반 조성하고 UNESCO 인류무형문화 유산 등재

4.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과제

- 제주해녀축제 세계화
- (축제의 규모화 및 대표화) 도내 6개 지구별수협과 100개 어촌계, 해녀가족, 도민 등 관광객과 함께하는 축제
- (콘텐츠의 다양화) 해녀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반영
- (축제의 세계화) 일본해녀, 한반도 출향해녀 등을 초청

(1) 제주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

- (해녀문화 민속자료 조사 수집) 해녀문화 보존 기반 구축
- (해녀문화 학술적 가치 정립) 체계적 해녀문화 조사연구

(2) 마을어장 보호 및 소득증대

- (마을어장 자원조성)수산자원 조성 및 생산성 향상
- (조업환경 개선) 잠수 탈의장 보강, 잠수복지원 등

(3) 해녀문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해녀문화교육센터 건립) 박물관내 해녀문화교육센터 시설 확충

- (해녀문화 체험장 운영) 해녀문화 교육을 통한 해녀정신 계승
- (4) UNESCO 인류무형유산 등재
 - (1단계 : 2011년 ~ 2012년)국가 비지정무형유산 잠정목록 반영
 - (2단계 : 2013년 ~ 2014년)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 (5) 해녀의 날 지정
 - (지정방안) UNESCO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날(2014. 9월)을 기념하여 해녀의 날 지정
- (6) 해녀문화 홍보
 - (2012여수세계박람회 제주홍보관) 제주해녀 메인컨셉 운영
 - (제주해녀상 건립) “자유의 여신상” 개념의 랜드마크로 시설
 - (국제크루즈 문화관광 상품개발) 국제크루즈 문화관광 상품 제공
 - (제주해녀 홍보영상 제작) 제주해녀 영상자료 제작 및 배포

5. 향후계획

-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 심의 : '11. 7월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확정 : '11. 7월

3) 기타

■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

- 제주시 한림읍과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녀작업의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해녀학교'와 해녀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라져가는 해녀의 맥을 잇고 해녀 문화를 보존해 관광자원화하기 위함이다.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해녀자격증을 수여받게 되며, 해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한림읍 지역 해녀가 직접 나서 교육하고, 의사와 119 구조대원, 스킨스쿠버 등도 강사로 나선다. 해녀학교의 교육과정은 연 2회이상, 하반기 5개월 과정으로 17주간 어패류 및 해조류 바로알기, 잠수병, 잠수법 및 호흡법, 수영법, 응급조치법, 해녀 실습 등 해녀로서의 필수지식과 전문지식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 그밖에도 한림읍 귀덕2리 해안에 해녀 체험장을 조성,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어패류 채취와 갯바위 낚시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해녀박물관 운영

- 해녀박물관은 일제의 수탈에 맞서 제주해녀들이 주체가 되어 투쟁했던 해녀항일운동의 발상지인 제주시 동쪽지역인 구좌읍 하도리에 자리하고 있다.

- 해녀박물관은 제주경제사에서 한축을 담당했었고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의 정신을 비롯한 해녀문화를 새롭게 평가함은 물론, 세계에서 유일한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해양, 어촌, 민속, 어업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교육적 가치를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1전시실("해녀의 삶"), 제2전시실("해녀의 일터"), 제3전시실("바다"), 어린이 해녀체험관

■ 산발적 행사 추진

- 제주해녀 국제학술 심포지엄
- 탐라문화제 해녀축제

3. 검토할 사항

- 예산집행근거
- 기존 조례와의 조화
- 해양수산 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적절한 해녀의 수는?

1. 해녀의 고령화

제주의 상징의 하나인 해녀가 해마다 줄고 고령화되고 있다. 2010년 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집계한 잠수어업인 현황에 따르면 제주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해녀의 수는 지난 70년 1만4천142명에서 80년 7천804명, 2000년 5천789명, 2010년 4천995명으로 40년간 70%가 넘게 줄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 해녀의 연령대는 30세 미만인 해녀는 없으며 30-49세 2.5%, 50세 이상 97.5%로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해녀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2. 해양수산 자원의 고갈

이와 같은 고령화가 나타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해양 오염 및 열대화 현상으로 인해서 해녀의 주요 소득원인 소라, 성게, 톳 등 수산물 채취량이 해마다 줄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녀들이 주로 채취하는 소라는 지난 2000년 2269t이 생산됐지만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지다 지난해 1326t으로 집계돼 8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 지난 2000년 103t이었던 성게 생산량은 지난해 54t으로 반토막 났으며 톳 역시 지난 2000년 2065t에서 지난해 1358t으로 조사됐다. 문어 역시 지난 2000년 195t이었던 생산량은 지난해 86t만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안에서 채취하는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해녀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연안바다에 수산물이 줄어들다보니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하지만 대부분 고령인 해녀들에게 깊은 물속에서 물질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녀들의 채취하는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해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힘들게 채취한 일부 어획물은 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녀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또한 채취한 일부 어획물은 매입업체들이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해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3.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녀의 수

해녀의 수는 2010년 기준 4천995명으로 그 중 약 78%인 3천916명이 60세 이상이며 30세 미만의 해녀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되어 현재의 상황으로는 약 20년 후가 되면 해녀는 현재의 20%인 1천여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산자원이 오염 등으로 인해 고갈되고 어업이 기계화되어 해녀들의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도 있겠지만 소득의 보장, 해녀들이 입수할 어장의 보장, 체계적인 교육 및 관광 상품과의 결합 등으로 급속하게 줄어드는 해녀의 수를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 해양수산업 및 관광산업 이외에 해녀와 관련하여 산업적 접근 방법

- 문화산업적 접근 (역사적 문화적 개발)

해녀의 역사나 이야기 등을 문학적인 소재로 삼아 전승하거나, 캐릭터(몽니)화 제주 해녀 및 관련 문화를 문화재로 지정

현재 '해녀노래' :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1971년)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 제주도지정 문화재 민속자료(2008년)

4. 향후 추진계획(안)

기간	계획	비고
2011. 9. - 2011. 10.	사전 자료조사	외국사례 조사 등
- 2011. 11	실태조사	해녀학교 등 방문 및 설문조사 실시
- 2011. 12	조례(안) 초안 작성	
- 2012. 1	관련자 협의	공청회 등
- 2012. 2	조례(안) 수정 작업	
- 2012. 3	최종 조례(안)	

■ 이후 가장 먼저 검토할 사안

- 일본의 해녀 조례 및 산업적 검토

일본의 해녀는 '아마' 로 불리고 있다. 일본의 전통 해녀에 관련된 관광산업이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래에 열거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해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슈화도 우리나라 보다 더 적극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해녀(아마)에 관련된 법률 또는 조례를 찾아 살펴보는 것은 기존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조례에 덧붙여 새롭게 지정하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해너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만한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말한 일본에서의 관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일본의 노력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보는 것 또한 유의미한 일 중에 하나라고 판단된다.

- 산업적 검토를 위한 기존 해녀 산업 및 전통문화의 분석

우리나라의 해녀만의 고유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된 문제 분석 단계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해녀 산업 및 전통문화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새로운 조례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II. 해녀관련 조사보고

1. 제주도 외 타 시도 관련 지원 법령.

- 부산광역시 해녀 복지관련 지원

- (1) 해녀 탈의실등 해녀공동이용 시설 대부분이 오래전에 임시로 만들어진 컨테이너 박스여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
- (2) 제주도의 해녀문화보존대책을 벤치마킹 하는 한편 부산지역의 해녀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일본의 후쿠오카와 치바현등을 방문하여 현지의 해너지원시설과 관련 상품의 판매시설 등을 살펴왔음
- (3) 08년 5월에는 제주도 해녀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실태, 판매장운영공동참여를 통한 소득증대 사업 내용, 해녀박물관 등 전래적 어촌문화 조성 실태 등을 견학하였으며 나잠어업인의 자긍심 고양 및 어촌사회 자율정화 기능을 고취해 나가려 노력
- (4) 제트 스키등으로 부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해녀 태와 보호망(형광망)을 제작하여 나잠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등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5) 09년 기장군 이천과 동백리 등 어촌마을 2곳에 시비와 군비 등 7억원을 들여 해녀복지회관

건립

(6)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하면 해녀관련 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 그 시작단계에 불과함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의료부분	1. 가압챔버 시설설치 2. 잠수어업인진료비 지원 3. 잠수어업인증 발급	특별히 없음
물질부분	1. 탈의장 건립 및 운영비 지원 2. 잠수복 구입 3. 잠수보호 조끼 지원 4. 태완 보호망 지원	1. 탈의장 건립예정 2. 태완보호망 공급예정 3. 리더 해녀의 인센티브 연수 및 견학실시

2. 제주해녀 국제 학술 심포지엄.

해녀박물관 주최·(사)제주학회 주관- 제주해녀의 해양문명사적 가치를 찾고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기준과 절차, 목록 작성과 관련된 논의와 토론의 장 마련.

회차	내용
제2회	해녀민속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제주 해녀들의 민속을 문화재로 지정보호 -제주 해녀들의 어장일부를 생태민속보호구역으로 선정 필요성 -해녀의 특성이 많이 남아 있는 마을 해녀민속자료구역으로 지정 검토 -해녀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의 계승 위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
제3회	'제주해녀와 일본 아마의 무형 유산' 한·일 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를 보존하고, 일본아마(海女)와의 교류 및 유네스코 한·일 공동 해녀 무형유산 지정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한국과 일본 해녀의 생업과 문화에 대한 조사 보고 및 논문발표와 토론, 에코페미니즘(생태여성주의) 관점에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 목록 등재기준과 절차를 살펴보고, 유산 목록 작성을 위한 논의

제4회	<p>문화유산 및 일본 아마 관련 강연 및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윌리엄 로건 박사의 '무형문화유산 : 새롭게 인식된 유산형태와 보존 대책' 기조 발제 - 일본 지바 경제대학 다나베사토루의 '일본아마의 전통', - 영국런던 대학의 톨로레스 마르티네즈 교수의 '일본아마 전통의 변화' 등 의 강연 및 토론 - 해녀박물관에서 독도 실효지배의 일익을 담당했던 해녀와 항일운동에 참가했던 해녀를 초청,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시간
제5회	<p>해녀의 보존대책을 마련하고 등재신청서를 신청할 프로젝트팀이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의 지속가능성과 보호-채취기간과 작업시간을 줄이고, 바닷속 잡초 제거, 투석, 해안에 흘러든 기름을 제거하는 '개담이'작업 금어구역 지정 - 제주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에 규정된 해녀문화 보존·전승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3. 관련 상위법

1) 수산업법

-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
-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
- 수산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구조조정, 수산인력·법인의 육성 및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어장환경의 정화, 수산물의 수출진흥, 수산업의 정보화, 어촌의 개발 및 관광촉진,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수산업의 대외협력 및 투자, 그 밖에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수산발전기금 설치
-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
-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등을 심의.

2) 수산업협동조합법

-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지구별 수협, 어촌계 등을 두어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

-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지원 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후생복지사업, 운송사업, 어업통신사업,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이 있다.

3) 수산자원관리법

-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과 같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포획·채취금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4. 관련 논문 요약 조사.

조사 목적

관련 문헌 및 논문을 통해 해녀에 관련된 문화 및 경제적 측면을 고찰하고 새롭게 만들어질 해녀 조례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보고자 함.

조사의 요약

- 일본 아마의 사례를 통해 자치회적 규약이 있음을 확인. 제주해녀의 자치회 규약(존재한다면)과 경제적 측면의 조례를 조화 시킬 필요성.
- 관광자원 및 문화계승의 측면의 연구는 꽤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문헌 자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음.

1) 일본 아마의 잠수실태와 특성

-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아마마치 및 헤구라지마의 사례를 통하여
-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 속하는 두 지구의 아마마을을 사례로 하여, 아마들의 잠수실태 특성과 더불어 아마들이 채취한 해산물의 판매실태를 중점적으로 고찰.
- 다른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잠수어업과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며 전통적으로 지연적 혈연적 관계에 바탕을 둔 자치회를 조직(우리나라의 해녀와 다른 특성으로 우리나라의 해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일본은 가업의 형태로 모든 가족이 관련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특징임) 마을일은 물론이고 잠수일과 어업에 관련되는 주요 사안들을 해결
- 아마들의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이소이리 조하도 아마마치자치회에 소속된 하부조직
- 7-9월에 3개월에 걸쳐 소라 전복 예고 등을 주로 채취 (더 좋은 수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치회에서 기간을 정하여 줌, 경제적인 도움) 일본에 존재한다는 해녀관련 조례는 자치회 규약인 것으로 파악됨.
- 헤구라지마에서 채취한 소라, 전복, 예고는 각 해산물의 특성상 서로 다른 수매과정
- 저복은 암수의 구분과 상처의 유무를 토대로, 소라는 3단계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예고는 건조한 상태에서의 색상에 따라서 수매가격이 달라짐.

2) 해녀 복지증진 및 관광자원화

(국토해양부-영남씨그랜트에학사업단 동의대학교 씨그랜트 사업단)

- 바닷가 물속에 들어가서 해조류와 패류를 캐는 여인을 잠녀, 잠수라고함.
- 잠녀란 몸에 아무런 보온장치 없이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우뚝가사리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따는 여성.
- 해녀라함은 일본에서 전래한 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잠녀 혹은 잠수라고 칭하여 왔음 (참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녀라는 말을 잠녀라고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
- 자맥질을 하면서 해산물을 캐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으로 물질을 하는 해녀, 해남의 분포지역이 한국과 일본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남자 잠수부를 해사라고 불렀음
-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해녀의 분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지역의 해녀와 일본의 시마지역의 해녀를 비교분석하고 있음, 일본의 시마지역은 일본의 아마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임
- 결과 - 해녀의 관광자원화 단계별 특징
- 해녀관광의 도입기에는 단기적인 지원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탈의실 및 수산물 판매장 등의 시설 측면의 개선을 통한 해녀관광의 형태가 나타남.
- 해녀관광의 성장기에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해녀관광센터'를 건립하고, 그 센터를

- 중심으로 '해녀사무장' 이 해녀관광을 주도해 나가는 형태를 보인게됨
- 해녀관광의 발전기에는 관광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해녀관광상품의 코스화 및 루트화의 개발로 다양한 해녀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이 나타남

3) 해녀 문화(출가해녀)

출가물질이란 제주해녀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나가 물질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배곶물질(바깥물질)' 이라고도 하며, 한반도로 출가물질 나가는 것을 따로 '육지물질'이라고도 했다. 예로부터 제주 해녀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뿐만 아니라 한반도 연안 곳곳과 동북아시아 일대를 자신들의 활동무대로 삼았다.

출가물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집단적으로 물질을 나간 것은 19세기 말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 해녀들의 출가는 처음 부산 지역이었으나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갑오경장(1894년)을 전후하여 해조류의 효용도가 높아지면서 부산 일대에 해조상이 많이 생겼고, 해조상들이 직접 제주로 와서 해녀들을 모집해 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1937년에 펴낸 제주도세요람(濟州道勢要覽)을 보면 그 해 3월 말 현재 한국 각 연안에는 2801명이 출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 1,650명, 경상북도 473명, 전라남도 408명, 충청남도 110명, 강원도 54명, 황해도 50명, 함경남도 32명, 전라북도 19명, 함경북도 5명으로, 경상남도 일대로 출가한 해녀수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녀들이 섬 바깥으로 물질 나갈 때에는 돛단배와 발동선·기선 등을 이용했으며, 출가지역의 민가의 방을 얻어 생활했다. 민가가 없을 경우는 나무를 베어다 임시로 오막살이를 만들어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출가해녀들은 먼바다로 나가 여러 날 동안 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물질하는 '난(나가다,出)바르(바다,海)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한 배에서 생활하는 해녀들을 일컬어 '□벧□수'라 한다. '난바르'에 반해 가까운 곳에서 치르는 물질을 '앞바르'라고 한다. '난바르'를 할 때의 채취물은 주로 전복과 소라 등의 패류였다. 난바르는 보통 한 곳에서 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치러졌다. 식사시간과 불씨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물질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해녀들에게는 상당히 고달픈 작업이었다.

출가물질을 나간 제주 해녀들은 물질 나간 지역의 해조상 등에게 착취를 당하거나, 난바르처럼 힘든 물질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녀들이 출가물질을 나가는 까닭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공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목돈마련이 쉽지 않았다. 그만큼 제주에서의 생활이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해녀들은 힘든 출가물질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고생은 심하더라도 답답한 섬 생활을 벗어나 훌가분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해녀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열심히 생활하는 제주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주 해녀들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마도, 동경, 고지 등지와 중국의 칭따오(靑島)나 따리엔(大連),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에 나가는 해녀들은 분명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돈을 마련하려는 제주 해녀들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바다를 개척해 나갔다. 해외 출가는 보통 3월에 나가 8월에 돌아왔으며, 태와, 빗창 등의 도구들과 식량을 넉넉히 챙겨가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았다. 출가 물질을 통해 제주해녀들의 개척정신과 절약정신을 엿볼 수 있다.

〈제주해녀의 한반도 출가실태〉 (단위 : 명)

연도별	계	경남	경북	전남	강원	기타
1962	4,090	1,356	1,584	232	787	131
1963	2,215	696	1,320	71	71	3
1964	2,071	378	1,354	108	108	66
1965	1,538	258	1,049	56	56	62
1966	1,903	338	1,103	143	143	131
1967	1,909	788	635	248	248	109
1968	1,093	159	654	84	84	115
1969	1,167	457	216	282	282	67
1970	1,023	239	85	188	188	511
1971	1,230	302	126	284	284	352
1972	917	264	249	158	158	142
1973	867	254	199	238	238	112

※ 자료: 제주도「한국의 해녀」(1999)에서 재인용

－ 일본 물질

제주 해녀들이 언제부터 일본으로 물질을 나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으로 보아 5세기 이전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하지만 일본물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로 보여지며, 광복 전까지는 해마다 1500~1600명이 일본으로 나갔었다.

1937년 발행된 제주도세요람(濟州道勢要覽)의 내용을 보면, 일본출가 제주 해녀수는 1,601명이었다. 대마도 750명, 정강(靜岡) 265명, 동경(東京) 130명, 장기(長崎) 65명, 룩아도(鹿兒島) 55명, 천엽(千葉) 51명, 덕도(德島) 50명, 애원(愛媛) 10명, 도근(島根) 10명이었다.

일본물질의 특징으로는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해녀도구를 가져가지 않고, '담뿌'라고 하는 부통(浮桶)을 사용했다. 부통은 북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그 밑에 그물주머니가 달려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물질을 '담뿌물질'이라고 했다. 담뿌 대신 널빤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이다아마(판해녀, 板海女)'라 불렀다.

- 중국 물질 : 칭따오(청도, 靑島), 파리엔(대련, 大連)

다른 곳과는 달리 칭따오는 제주도 사람인 문씨가 미역을 옮겨가 의도적으로 개척한 곳으로 문씨가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다른 곳에 비해 현지인과 관리들이 우호적이며 물질도 편했다고 한다.

제주의 상군 해녀들은 보통 5월에 칭따오에 가서 8월에 돌아오곤 했다. 수입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며, 제주 해녀들이 캐는 미역의 양이 많아서 산둥성(山東省) 일대에서의 미역 수입이 중단되기도 했었다.

칭따오로 간 해녀들이 미역을 캔 것에 반해, 파리엔으로 나간 해녀들은 우뭇가사리나 미역을 캐지 않고 오직 전복만을 따다. 파리엔의 전복은 그 크기가 자잘했다고 한다. 칭따오나 파리엔으로 물질간 해녀들은 식량과 테왁, 빗창만 챙겨 갔으며, 언어가 통하지 않아 힘들었다. 파리엔에는 해녀가 없었고 어설픈 모습으로 물질하는 남성들이 있었다고 한다.

- 러시아 물질 :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로 물질을 나갔던 해녀는 다른 곳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출가했던 해녀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여름철에도 눈이 쌓여있을 정도로 무척 추웠으며, 여기서서는 주로 다시마를 채취하였는데, 이곳의 다시마는 그 크기가 무척 커서 배로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고래가 많아 고래와 마주치는 일이 많았는데, 배가 기우뚱거리는 등 곤혹을 치렀다. 그럴 때마다 쌀을 한지에 싼 '지'를 바닷속으로 던지곤 했다고 한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물질을 살짝살짝 치르도록 인솔자가 당부하곤 했는데, 당시의 입어권(入漁權)이 비정상이었는지, 임시방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참고자료〉

김영돈(1999)『한국의 해녀』, 민속원
 제주도(1996)『제주의 해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1)『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추진위원회(1995)『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 4) 제주 해녀춤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특성 연구
- 제주 해녀 춤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및 문화 계승방안에 대한 내용.

III. 해녀조례 제정 조례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경제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제안

1. 줄어만 가는 해녀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젊은 해녀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안 마련

- 해녀기술 뿐만 아니라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학과 또는 전문과정을 설치함
- 기존의 학부과정에 부전공이나 연계전공과정을 개설하여 기존 대학의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가. 관련 사례

1)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

- 제주대학교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유치하였고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를 설립.
- 지원금으로 기존 학부생에게 물산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연계전공으로 개설토록 함.
- 또한 관련 강좌를 이수하는 등 물산업 관련 포인트를 쌓아 그에 따른 장학금을 주는 등 물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물산업 관련 공모전 또한 개최하여 학부생 그룹이 개발한 차를 직접 개발하기도 하는 성과.

2) 말산업 특성화

- 정부주도의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 특구를 선정하여 말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말산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중 [2012년 하반기에 확정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말산업 특구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말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 인재양성 위한 말산업 특성화 대학으로 제주대학교와 한라대학교를 선정.
- 제주대학교는 승마단을 창설
-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의 남측 부지 7만 여 평을 말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장소로 사용예정

나. 관련 사례를 통한 제주해녀의 지원방안

- 해녀지원 조례를 통해 해녀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재양성은 필수.
- 조례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육성에 대한 의식고취 필요성
- 잠수어업인은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존재함.

2. 기존 해녀 지원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해녀 조례의 보완 필요.

- 잠수어업인 지원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해녀의 지원에 대한 조례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는 해녀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마을 어촌계 활용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음.
- 어촌계 경영평가 사업을 통한 공정한 마을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여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붙임) 잠수어업인 현황(10년말 기준)

잠수어업인 현황('10년말 기준)

□ 총괄

(단위 : 명)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10,972	5,712	5,260	
현직잠수	4,995	2,755	2,240	
전직잠수	5,977	2,957	3,020	

* 현직잠수 : 현재 물질조업을 하면서 패류 또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잠수 어업인

□ 현직 잠수어업인 현황

○ 시별·연령별

(단위 : 명)

구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4,995	-	2	123	954	1,752	2,164
비율(%)	(100)	-	(0.1)	(2.4)	(19.1)	(35.1)	(43.3)
제주시	2,755	-	-	87	552	913	1,203
서귀포시	2,240	-	2	36	402	839	961

○ 수협별·연령별

(단위 : 명)

구분	계	50세미만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이상
계	4,995	-	2	123	954	1,752	2,164
제주시수협	1,891	-		61	390	619	821
서귀포수협	834	-	1	4	121	338	370
한림수협	742	-		25	137	236	344
추자도수협	122	-		1	25	58	38
성산포수협	922	-	1	15	174	330	402
모슬포수협	484	-		17	107	171	189

○ 최고령·최연소 잠수

구분	잠수소	성명	생년월일	잠수경력	비고
최고령	우도면 오봉리 954	고경순	'21.01.01	70년	783-0302
최연소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49	박미야	'74.04.14	5년	782-3515

- 시별 최고령·최연소 잠수

구분	구분	잠수소	성명	생년월일	잠수경력	비고
제주시	최고령	우도면 오봉리 954	고경순	'21.01.01	70년	783-0302
	최연소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746	양영신	'72.03.20	13년	796-2775
서귀포시	최고령	서귀포시 대포동 1955	김 절	'21.05.05	77년	738-2776
	최연소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49	박미야	'74.04.14	5년	782-3515

○ 남자 잠수어업인

구분	현주소	성명	생년월일	잠수경력	비고
계		3명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28	임태삼	'63. 6.26	17년	794-1678
	안덕면 사계리 2294-1	임동옥	'39.12.20	42년	794-3530
	대정읍 상모3리 305	홍창남	'66.11.23	20년	794-3234

□ 연도별 잠수현황

구분	연도별	'70	'75	'80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잠수수(명)	14,143	7,804	6,827	5,789	5,650	5,545	5,406	5,279	5,244	5,095
연령 구성 비율 (%)	30세 미만	31.3	9.8	4.3	0.1 (3)	- (1)	-	-	-	-	-	-
	30~49세	54.9	60.7	44.2	22.1 (1,282)	14.6 (825)	12.9 (718)	9.6 (518)	6.7 (356)	4.9 (263)	4.2 (213)	2.5 (125)
	50세 이상	13.8	29.5	51.5	77.8 (4,504)	85.4 (4,824)	87.1 (4,827)	90.4 (4,888)	93.3 (4,923)	95.1 (4,981)	95.8 (4,882)	97.5 (4,870)

※ ()는 잠수 수

□ 연도별 잠수소득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잠수수	잠수수 종류	금액	잠수수 소득(천원)
2010	4,995	3,634	17,238	3,451
2009	5,095	3,468	15,276	2,998
2008	5,224	7,600	14,600	2,784
2007	5,279	7,322	13,256	2,511
2006	5,406	7,356	17,480	3,233
2005	5,545	4,022	17,426	3,142
2004	5,650	4,592	20,774	3,676
2003	5,650	5,528	18,122	3,207
2002	5,659	7,736	21,275	3,759
2000	5,789	8,763	20,392	3,522
1990	6,470	14,661	20,355	3,146
1980	7,804	20,077	6,842	876천원
1970	14,143	21,622	411	29천원
1966	23,081	13,669	162	7천원